

일본도 경계한 MBK... 홈플러스 사태로 신뢰도 '시험대'

메리츠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어" 입장문 내고 MBK파트너스 정조준 H 정부, H 기업 인수 시도에 제동 사모펀드 책임경영 문제 '수면위'



ChatGPT로 생성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논란' 관련 이미지.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실패한 투자에 무한 책임은 과하다"라는 동정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 매각으로 배를 불린 뒤, 본업 경쟁력 저하로 실적이 나빠지면 나 몰라라 하는 '먹튀 경영'의 전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MBK를 향한 책임론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투자 기업들의 탐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추가 공개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MBK 회장과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19일 메리츠금융은 "긴급한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한 긴급대출 시 부실경영 책임자들에게 대한 보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회생 가능성을 자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김회장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며, MBK가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꼬집었다. 메리츠금융은 MBK

파트너스가 스스로를 동북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PEF)로 소개해 왔으며, 운용자산(AUM)은 약 325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포브스가 집계한 2026년 한국 부자 순위 2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추정 자산은 99억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MBK는 2025년말 기준 대표 4개 펀드(3, 4, 5, 6호)에서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메리츠금융은 "MBK는 해당 펀드 운용을 통해 약 3억달러의 관리보수와 약 5억달러의 성과보수 등 총 8억2000만달러, 약 1조2300억원 규모의 보수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MBK가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MBK가 직접 거액의 손실을 부담한 것처럼 시장을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가 주장하는 4000억원 지원금 대부분이 지급보증에 불과하며, 회생개시 이후 실제 현금 투입은 김회장의 400억원 증여뿐이라고 주장했다. 4000억원 중 2000억원은 회생절차 신청

전 홈플러스가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보증이며, 1차 긴급운영자금 DIP 600억원과 2차 DIP 1000억원 역시 MBK가 직접 현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보증을 제공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로 PEF가 '먹튀 자본'의 불명예를 안은 것은 업계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PEF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투자 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PEF 업계가 '몬스타 사태' 이후 투기자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은 지난 20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투자 실패 시 손실이 기업과 사회 전반으로 전가되고 운용사의 책임은 제한적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최우선인 만큼 수익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유인은 크지 않다"며 "현재 국내 사업 비중을 줄이고 일본 시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에, 국내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경계한 MBK... 고려아연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MBK는 최근 솔라스토, FICT, 알테미라홀딩스 등 일본 내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의 정밀공작기계 기업 마키노후리스 제작소(마키노밀링)에 대한 인수 작업도 시도했다. 한국에서는 줄어든 입지를 일본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마키노밀링 인수에 실패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근거로 MBK파트너스의 마키노밀링에 대한 공개매수(TOB)와 관련해 중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마사키 요시히사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소셜커뮤니케이션국 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 행사 초빙특강을 통해 "행동주의 펀드의 부정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중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가 안보나 공익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무분별한 경영 개입에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마사키 본부장은 "고려아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이라면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MBK를 순수한 한국계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개입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키 본부장은 그러면서 "MBK의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시선도 비슷하다. 고려아연 노조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연대 성명을 내고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도를 비판했다. 홈플러스에서 나타난 구조조정과 점포 폐점이 고려아연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려아연은 반도체 배터리 방산 공급망과 연결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단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려아연 노조는 MBK를 '악탈적 사모펀드', '거대 투기자본'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거대 투기자본의 침탈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단순한 기업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울산 경제의 미래, 한미 경제동맹의 존립과 노동과 산업의 동맹이 흔들리는 절박한 위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내몰린 점도 언급하면서 "10년 후 고려아연이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MBK의 마키노밀링 인수를 막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악탈적 사모펀드 방지법'(일명 MBK 방지법)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도 중국계 투자자들의 자국 희토류 기업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중국계 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명령하는 등 주요국이 전략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NH證 연금자산 20조 돌파

4년간 연금자산 3배 이상 증가 확정기여형·IRP 자금 유입 확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퇴직연금 시장의 무게중심이 적립금 규모 경쟁에서 수익률과 자산관리 역량 경쟁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의 연금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진 결과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자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연금자산도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900여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적립식 ETF 서비스와 AI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도 운영

중이다. 회사는 이 같은 투자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과 은퇴 계획에 맞춘 연금 운용 환경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전체 사업자 종합평가 상위 10% 우수사업자와 증권업권 우수사업자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연금전문 상담조직인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는 '연금VIP팀'을 통해 연금 운용뿐 아니라 세무·상속·증여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시장이 운용성과와 자산관리 경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연금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외매출·재고자산... 금감원 회계감독 강화

'중점심사 회계이슈' 발표

금융감독원은 21일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내년도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중점 점검 분야는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다. 금감원은 해외시장 접근 제한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회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의 인도조건(FOB 등)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이 적절인지, 실제 통제 이전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외 거래처의 신용위험 증가 여부를 반영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적정하게 설정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중점 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의

가치 하락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아졌음에도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제품군 단위로 묶어 평가 손실을 축소하는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가운데 재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회계처리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투자부동산 관련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별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사업환경 변화로 손실부담계약, 보증 의무, 소송 관련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거나 우발부채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허정윤 기자

스페이스X에 몰린 개미 순매수 규모 3조 '눈앞'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들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주식 순매수를 나흘째 이어갔다. 총 순매수 규모는 3조원에 육박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스페이스X 주식을 1억 3667만 달러(2095억원) 사들였다.

매수 금액은 1억 8247만 달러, 매도 금액은 4580만 달러에 달했다.

스페이스X 주가는 135달러에 상장 후 사흘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며 200달러를 넘었다가 17일에는 처음으로 하락(-4.95%)했다.

그러나 서학 개미들은 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다만, 전날(6억 7012만 달러)보다 매수 규모는 줄어들었다. 이로써 개인들이 상장 후 4일간 사들인 스페이스X 주식 규모는 총 19억 4960만 달러(2조 9887억원)로 집계되며, 3조원에 육박했다.

이달 들어 미 주식 시장에서 서학 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2위 마블테크놀러지(3억 955만 달러)의 6배를 넘었다.

서학 개미들이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 종목 랭킹에서도 20위 인텔(20억 1389만 달러)을 바짝 추격했다. /신하은 기자